니까야서 길을 묻다 팔정도(八正道) ⑤

도덕적 완성 위한 사고체계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내용은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말(語), 행위(業), 생계유지(命)이다. 이 셋은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하다'(正)는 말을 제외하면, 세상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우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대념처경〉의 설명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생략하고 핵심 내용을 들어보자.

"비구들이여, 거짓말, 이간질, 욕설을 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를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말'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성욕을 멀리하는 것을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행위'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부적절한 생계[수단]를 버리고 적절한 생계[수단]에 따라 생활을 꾸려가는 것을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한 생계유지'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불교사상가들은 이 세 가지를 '도덕적 완성을 지향하는 사고체계'(戒學)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공부라고 할 때 이 셋은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심축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문제다. 일상에서 구사하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함'의 지향을 위해 멀리해야 하는 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나와 다른 이들에게 유익함을 가져오지 않는 성격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곧,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욕설이나 비방(惡口), 꾸며낸 말(綺語)'을 하게 되는 의도가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불교적 가치에서 첫 번째 목표인 '유익함'을 해치게 되므로 '바르고 적절하며 온전하지 않다'는 부처의 진단인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행위의 문제다. 불교 용어로는 '업(業)'이다. '업(業)'은 '죄'와 동의어가 아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업은 '한 것'이니, '행위'를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그들의 전통적 사상체계에 바탕해 '행위'가 일회성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행위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세하게 풀면, 하나의 행위가 발생하면 그것은 다음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써의 잠재된 힘을 내장하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위에 개입되는 '의도'가 문제되며, 그 의도가 적절한가의 여부에 따라 '유익하지 않은 결과'(惡業)를 가져오거나, '유익한 결과'(善業)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있다. 어떤 행위가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해 그 결과를 가늠하지 못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음'(無記業)이라고 한다. 이때 한자어 '기(記)'는 기별(記別)의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업(業)은 '행위'로써 그 행위가 일어난 '의도와 경향성'을 문제 삼은 것이며, 그 행위로 결과가 다음의 행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살생, 도둑질, 음행(淫行)의 셋은 언어활동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함'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이 부처의 생각인 것이다.



그림 · 나은영

세 번째는 생명체에게 필연이 되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생각이다. '목숨'(命)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나 아닌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의 유익을 해치지 않는 길의 모색에 해당한다. 앞에서 논의한 '계(戒)'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지점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반백년 인재 포교 매진한 대강백…

그대는 자비보살

명성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1952년 해인사서 선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다섯 차례(3 · 4 · 5 · 8 · 9대) 역임했다. 1970년 운문사 강주로 운문사에 첫발을 내디딘 스님은 1977년부터 1998년까지 운문사 주지소임을 다섯 차례(8~12대) 겸임하면서 청도 운문사를 세계 최대 수준의 비구니 교육도량 대가람으로 일신시켰다. 2003년 전국비구니회 회장(8 · 9대)을 맡을 당시엔 비구니회를 탄탄한 조직으로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존하는 비구니계의 최고 대강백으로 일컬어지며 〈불교학논문집〉〈구사론대강〉 등 다수의 논문과 번역서가 있다. 또한 서예로 대한민국 국전에 입선할 만큼 붓글씨 솜씨도 빼어나다.

청도 운문사는 신라 진흥왕대인 557년 한 신승(神僧)이 3년간 수도끝에 큰 깨달음을 얻은 뒤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집필을 시작한 곳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나이 500년 된 커다랗고 우아한 소나무(천연기념물 제180호)로, 가지가 축 처져 있어 땅에 닿을락말락한다. 400년이 넘은 은행나무도 있어 1400여 년 된 '천년 고찰'의 깊이를 더한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담벼락 돌 하나까지 손수 정성껏 가꾼 이가 바로 '비구니계 역사이자 대모'인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다. 운문사가 곧 명성 스님이요, 스님이 곧 운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명성 스님이 1977년부터 20여년 간 5차례에 걸쳐 주지를 맡으며 운문사를 현재와 같은 대가람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6월 1일 경내 스님의 주석처에 들어서자 다실에 걸려 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 온다. 명성 스님의 평소 가르침이자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즉사이진(卽事而眞)'이다.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쓴 이 말은 성심으로 하지 않은 일은 진실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일을 할 때 스스로 그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일이 바르고 잘 되지 않음은 물론이요, 또한 진실되지 않음은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즉 성심을 다해 진실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다른 이에게도 감동을 주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렇듯 명성 스님은 후학들에게 모든 일을 성실히 하고 진실되게 하라고 강조한다. 겉모양만 번드레해서는 그 실속 없음이 이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된 일은 하등의 이익을 자기나 남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이다.

명성 스님과 동석하자마자 여쭈었다. 법계 문학상 제정 취지에 대해서. 명성 스님은 "조계종이 가장 역점을 두는 3대 사업이 역경, 포교, 도제 양성입니다. 그런데 역경과 도제 양성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포교 였습니다. 포교중에서 문서 포교는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해 제 호를 따서 법계 문학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특히 제 주변 지인들한테 불교문학이 침체됐다는 말을 듣고 문학상 제정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나중에 제가 없어도 후학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법계 문학상 상금 규모도 점차 늘릴 생각입니다."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거목인 명성 스님이 지난달 5월 불교계 신진 장편 작가 양성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 문학상을 제정했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운문사를 전국 최대규모의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으로 키운 명성 스님의 법호인 '법계'를 따서 만든 법계문학상은 한국문학의 발전과 불교 포교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명성 스님은 문학만큼 불교정신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고 판단해 문학상을 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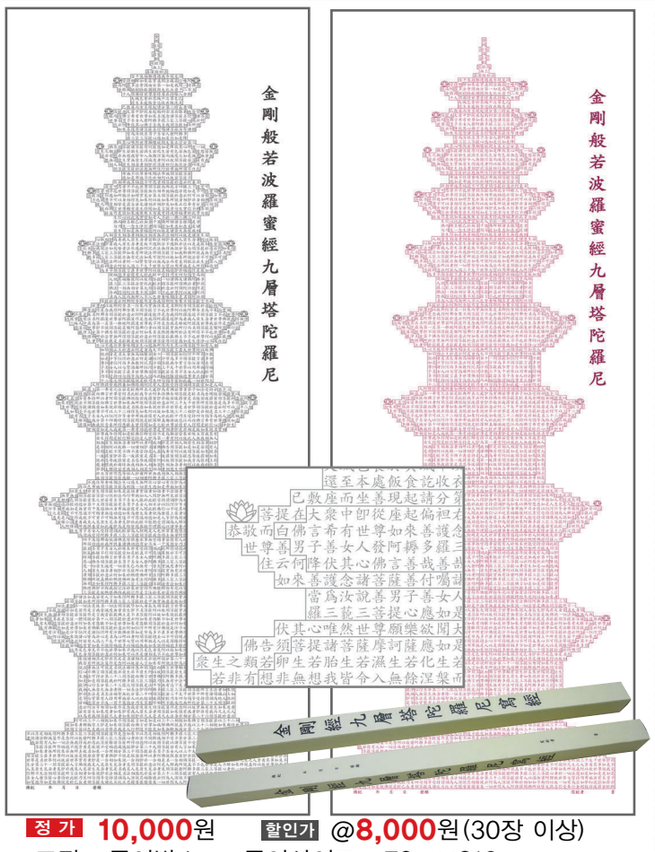
법계문학상은 기존 불교계 문학상들이 쉽게 다루지 못한 장편소설과 동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학상으로는 현대불교문학상과 유심작품상이 있지만 시 · 시조 · 학술 · 단편소설 · 평론 등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명성 스님은 말을 이었다. "불교계에 장편 작가들이 활동할만한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계문학상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상이 역량 있는 작가를 길러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상들이 더욱 힘을 받고 늘어나 인재를 양성하고 문서 포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명성 스님은 역시 호인 법계를 따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운문사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법계장학금은 명성 스님이 고희 논문 출판과 수행 생활 틈틈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지난 2003년 장학생 5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4회에 걸쳐 모두 93명의 스님과 불자학생에게 총 2억3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 3월 12일에도 운문사서 14회 법계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명성 스님은 이날 중앙승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정각 스님을 비롯한 6명의 스님과 뉴욕주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하원씨 외 1명 등 8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전했다.

이외에도 명성 스님은 전국비구니회 회장 당시 '법륜비구니 장학회'도 설립했다. 2006년 법련사서 서예전을 열어 얻은 수익금 5억원과 이사스님들이 기부한 2억원을 합해 총 7억원 규모의 '법륜비구니 장학회'를 2010년도에 설립했다. 해마다 5~6명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선행을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명성 스님은 운문사를 넘어서 한국불교 비구니계에서 브랜드이자 정신적 지주이다. 이에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는

(특)대형금강경 9층 탑사경지 〈먹/적, 종이박스포함〉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30장 이상)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76㎝×210㎝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 (1000벌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 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卽事而眞’으로 최선 다하라”

〈즉사이진〉



2010년 운문사 승가대학장시절 법문 출판기념회서 축하 케이크 절단을 하는 명성 스님.(왼쪽서 네 번째)



명성 스님은 국전에 입선할 만큼 붓글씨 솜씨도 빼어나다.



명성 스님이 법륜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앞줄 왼쪽서 세 번째가 명성 스님)

전국비구니회서 초대 원로의장에 추대
문서포교위해 올 5월 법계문학상 제정
2003년 법계 장학회 설립…총 93명 수여
2006년에는 법륜 비구니장학회도 창립

5월 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회의를 열고 초대 원로의장에 단독으로 추천된 명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현재 비구니계서 명성 스님만큼 큰 업적을 남긴 스님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이다. 명성 스님은 “원로회의는 전국비구니회라는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전국비구니회가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전통 계맥을 이어오는 한국 비구니계는 세계 여러 불교국가들로부터 신망과 부러움을 사고 있는 만큼 세계 제일의 비구니회가 되도록 후배들과 손잡고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올해로 세수 87세, 운문사 주석 47년을 맞은 명성 스님은 전통 학문과 현대 학문을 섭렵한 대강백이면서 한국 비구니계의 얼굴이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명성스님의 운문사 주석 40년을 기념해 제자들이 명성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책 3권을 출간해 봉정식(출판기념회)을 가지기도 했다. 출간된 책은 명성스님의 상좌 서광스님이 쓴 명성스님 평전 〈후박꽃향기〉, 명성스님의 법문을 모은 〈즉사이진(卽事而眞)-매사에 진실하라〉,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명성스님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꽃의 웃음처럼 새의 눈물처럼〉 등 3권이다. 명성스님이 동국대 교수직을 마다하고 운문사로 내려와 비구니교육에 투신한 이후 길러낸 제자는 2천여명이 넘는다. 사실상 우리나라 현재의 비구니 스님 상당수가 명성스님의 손길을 거친 셈이다. 23세에 ‘늦깎이’로 출가한 명성 스님은 여성이 초등학교를 나오기도 힘들 당시 명문인 강릉여고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이 엘리트 여성에게 발심 출가를 권유한 것은 대강백인 부친 영향이 컸다. “내가 이렇게 승려 노릇 하는 게 나쁘면 너한테 권하겠느냐”는 부친의 권유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가했다.

명성 스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출가 후에도 계속됐다. 서울 청룡사 강원 강사로 10여년간 후학을 지도한 후 동국대 교수직을 마다하고, 1970년 운문사로 내려와 강사를 시작했다. 1977년부터는 운문사 주지 겸 운문승가대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후학 교육과 운문사 불사에 매진했다. 또한 스님은 2004년부터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 8대와 9대 회장을 맡았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5차례 지내는 등 종단 일에도 참여하면서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을 끌어올리는데 힘썼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민주적인 교수법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스님이 강조한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부처님의 행을 따라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행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불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명성 스님은 그 꼿꼿함으로 인해 마침내 일가를 이루었고, 전세계 비구니 수행승들의 사표가 됐을 것이다.

이같은 명성 스님의 노력과 열정으로 운문사 승가교육은 다른 강원(講院)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한국 불교 교육의 기틀을 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스님은 경전뿐만 아니라 교양철학, 역사, 피아노와 서예까지 가르쳤다. “경(經)은 부처님 말씀이고, 선(禪)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화가도 있고 성악가도 있습니다.”

스님 말씀은 짧고 간결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숫자에도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가 있듯이 우리 선 자리서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스승은 스승답게, 제자면 제자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요.”

명성 스님이 내전과 외전을 두루 겸비한 것도 이렇게 매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비구니계의 큰 사표로서 2007년에는 조계종 사상 처음으로 열린 ‘비구니 법계 품서식’서 비구니 최고의 법계에 해당되는 ‘명사’에 품서돼 존경받는 큰 어른이 됐을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알려져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명성 스님은 부산서 제정된 ‘일맥재단 사회봉사상’을 지난 2004년 수상했고, 2008년에는 운문사 승가대학과 중국 명문대인 칭화(淸華)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로써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칭화대 대학원에 우선적으로 입학이 허락되게 했다. 스님은 또한 19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지도자대회에 참석했으며 2001년엔 스리랑카 ‘Sasana Kirthi Sri’ 공로상을, 2008년 3월에는 태국 방콕서 UN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협회가 수여하는 ‘탁월한 불교여성상’을 받기도 했다.

명성 스님은 말한다. “절에 와서 수행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수행 도량입니다. 가정, 직장이 다 수행하는 장소지요. 유마경에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곳이 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일곱 가지 보석을 갖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즉사이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정진합시다.”

청도 운문사=김주일 기자

전법일기

넌 감동이었어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전 · 의경 중에는 전역 이후에도 꼬박꼬박 문안 전화를 하고, 부처님오신날마다 특별한 영가등을 올리는 인연이 있다. 바로 ‘성우’라는 이름의 젊은이다. 이름처럼 굵직한 목소리가 제법 잘 어울리는 이 친구는 청도에 살며 현재 구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몇 년 전, 성우가 경찰병원 5층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의 이야기다. 전경으로 근무하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그였다.

“스님! 안녕하십니꺼! 여기도 법당이 있습니꺼?”

경상도에서 나고 자란 나의 귀에 퍽 익은 사투리가 들렸다. 성우와의 첫 대면이었다. 씩씩한 목소리로 처음 보는 스님에게 법당 위치를 묻는 모습이 기특해 첫 만남부터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친구였다.

“우리 어머님이 절에 다니십니더.”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데 자신도 부처님이 좋아 불자가 됐다고 스스럼없이 밝힌 성우. 성우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늘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세로 지냈기에 병원 식구들은 항상 그를 칭찬했다. 그래서 성우가 다녀간 자리에는 늘 훈훈함이 남아있었다.

특히 한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던 간병인 보살님은 싹싹한 성우를 마치 친자식처럼 챙겨줬다. 보살님은 성우가 수술을 마치고 병실을 옮겨 누워있을 때도 찾아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정성을 베풀었다. 심지어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한 성우를 위해 목욕할 때 등을 밀어줄 정도로 극진하게 보살폈다. 어쩌면 보살님 슬하에 자식이 없었기에 성우에게 더욱 정이 갔으리라. 성우도 그런 보살님의 정성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덕분에 성우는 무사히 재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나와 간병인 보살님에게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다. 보살님은 성우와 전화 통화를 한 날이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님이 무리하게 간병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급성뇌출혈이 원인이었고, 이로 인해 보살님은 세상을 떠났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성우 역시 몹시 마음 아파했다. 얼마 뒤 법당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성우였다.

“스님! 부처님오신날 영가등 하나 달고 싶습니더. 순금 아줌마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게 등 하나 밝혀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성우의 등불공양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을 위해 머리카락을 팔아 등을 밝혔듯이 성우의 변함없는 정성에 간병인 보살님은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셨으리라.

또 어느 날은 내가 머무는 선원에 성우가 찾아왔다. 마침 밭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스님,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 됩니더!”

두 팔을 걷어붙인 성우는 나를 도와 함께 밭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시종일관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몇 달 전, 성우의 부친이 경운기를 몰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우는 사고 얼마 전 불길한 꿈을 꿨다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며칠간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행히 성우의 부친은 지극한 아들의 정성 덕분에 빠르게 회복해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한다.

성우는 마음 쓰는 것이 부처님을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성우의 마음씨에 지인들은 항상 감동을 느끼곤 했다. 요즘 들어 성우의 마음 씀씀이가 생각나는 건 팍팍한 삶에 지친 젊은이들의 모습이 가엾기 때문이다. 주위를 맑히는 성우 같은 친구들이 조금 더 늘어나길 바라며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무관 스님(서울 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그림 · 박구원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홍법사 청동대불(26m)



수종사 범종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